

# 호구지책만 일까 -울적했던 그 어느 날-



대한산업보건협회 이사  
윤 명 조

먹고산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의식주란 살아가는 동안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 중에서 직접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역시 먹는 것이라 하겠다. 먹어야 산다. 식음을 전폐한다면 며칠이나 살까. 남자는 9일, 여자는 13일이라는 주장도 있다. 옛날 옛적, 우리가 어렸을 때 “너! 울면 밥 안 줘” 라고 하면, 울던 개구쟁이도 언제 울었는가 싶을 정도로 울음을 뚝 그친다. 먹을거리가 없어 굶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가난한 시절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호구지책(糊口之策)이란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입에 풀칠만 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그 대책, 즉 ‘직업을 가져야 산다’라는 급박하고 애절한 이야기와 서로 맥이 상통한다.

지금으로부터 36년 2개월전, 모 탄광에서는 1963년 5월 16일, 즉 5·16혁명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날까지 1년간 516m의 굴을 뚫기 위한 기념 행사의 굴진 목표였다. 탄광에서는 탄 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60~90%의 규산이 있는 화강암층을 뚫고 들어가야 한다. 이 작업을 탄광 용어로 굴진(掘進)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뚫어진 이 곳은 석탄층에서 채탄된 석탄을 탄차로 운반키 위한 갱도로 흔히 이용된다. 이 굴진 작업은 폐쇄된 굴속에서 평상시에는 착암기 1대가 가동되어 폭약을 장진키 위한 구멍을 뚫는다. 그러나 이 기념 행사시에는 3대의 착암기가 동원되어 목표량을 달성키 위해 4교대 교체 작업으로 24시간을 계속하면서, 전투를 방불케 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목표는 달성되었다.

이 기간중 그 곳에서 작업하던 광부, 180cm 이상의 흰칠한 키에 건장하고 잘 생긴 광부가 왔기에 건진의 절차를 밟았다. 청력검사에 임하였다. 청력검사기의 헤드·폰을 머리에 착용하고 양쪽 귀의 청력을 오디오 그래프에 기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왼쪽 귀의 청력은 전형적인 직업성 난청인 C<sup>d</sup>dip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오른쪽 귀의 청력은 노인성 난청과 같은, 아니면 고막파열과 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상하였다. 건진을 끝낸 후, 이 잘 생긴 광부와 함께 당시 장성의료원 이비인후과 모 과장에게 가서 청력 감사 성적을 제출하면서 정밀 검사를 부탁했다. 이경(耳鏡)을 비치면서 문체의 오른쪽 귀를 침착하게 검사하더니 컷밥으로 외이도(外耳道)가 딱 막혀 있었다고 한다. 이 광부의 잘 생긴 얼굴이 아픔을 참느라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그리고 약간의 비명을 지른다. 제거 작업이 끝나니 이 친구 눈망울이 뻥뻥 빛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컷밥이 막혀 있었기에 오른쪽 귀의 청력이 살아 있었다. 만약 컷밥이 없었다면 왼쪽 귀와 같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의 직업성 난청이 됐을 뻔했

으니 말이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는 의사의 모습, 그 모습을 번갈아 보면서 나는 공연히 즐겁기만 하다. 이것을 보람이라고 했던가. 그런 일이 있는 후 이 광부와 나와는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이리하여 한 반년쯤 지난 어느 날, 비명과 절규하듯 한 소리로 질주하면서 병원으로 들어오는 구급차. 들것에 실려 나온 검은 작업복과 석탄이 뒤범벅된 피투성이 환자. 이 환자는 곧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〇〇〇씨라고 나한테 전해 왔다. 싸늘하게 변한 그 잘 생긴 사나이. 오른쪽 귀의 뒷부분에 청력을 되살렸다고 좋아하던 그 청년. 두 아이와 부인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가슴도 어느새 싸늘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래서 동행했던 안전 기사에게 사망의 사연을 물었더니 다음과 같았다.

이 청년을 포함한 여러 명의 광부가 작업을 마치고 퇴광하기 위해 철학과 같은 캄캄한 지하 갱도를 걷고 있었다고 한다. 마침 갱도의 철로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곳에 도달했을 때, 석탄을 실은 탄차가 뒤쪽에서 달려 왔다고 한다. 모든 광부들은 오른쪽으로 대피했는데 이 청년만이 차가 달려오는 왼쪽으로 뛰어 들어 갔다고 한다. 그러니 그 사망 원인은 확실하게 입증된다. 이 청년은 왼쪽 귀가 심한 직업성 난청이 왔기에 들리지 않았지만, 오른쪽 귀가 잘 들려 왼쪽으로 달려가는 탄 차의 주행 소리를 소리가 잘 들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왼쪽으로 피했고 그 것이 결국 달려오는 탄 차에 뛰어 든 결과가 되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고이다. 이 날, 하루종일 울적하기만 했고, 36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 날, 그 때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의 뇌리에 남아 있다.

이 사고는 예방할 수 없었을까. 한 번 생각해 보자. 첫째 폐쇄된 지하 공간에 많은 착암기를 많이 가동하지 말았어야 했다. 둘째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를 착용했어야 했다. 셋째 교체를 더 많이 하여 하루에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했어야 했다. 더욱 적극적인 방법은 착암기의 소리를 기계공학적으로 발생 억제시켜야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방지 대책 원칙인 ① 오염배출원 억제(음원대책), ② 배출원과의 최대 이격, ③ 작업 시간 조절, ④ 보호구 착용, ⑤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이 이행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착암기를 잡아야 작업할 수 있으니 ②항의 배출원과의 최대 이격은 불가능하다. 나머지 사항은 방지가 가능한 것이다. 이 내용들은 경영 결정권자가 무성의한 부분이다. 한 부분씩 대안을 생각해 보자. ① 착암기를 너무 많이 배치시켰다는 점, ② 8교대 작업을 실시했어야 했다. ③ 보호구를 보완하여 엄격하게 착용했어야 했다. 즉 귀마개만 할 것이 아니라 귀 덮개를 하여 두개골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 다시 말해 골전달음(骨傳達音)을 차단했어야 했다. 그리고 작업중에는 반듯이 귀 보호구를 착용해야 했을 것이다. ④ 작업자들에게 고음에 노출되면 청력 손실로 일반 사회생활이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사고로 생명에까지 위협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렸어야 했다.

보건관리자와 요원의 임무는 막중하다. 경영 결정권자에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대안을 건의해야겠다. 호구지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직업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직업은 먹기 위해서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보람이 있어야 한다. 그 보람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 산업보건은 진실로 근로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일들을 사전에 점검, 대책 강구하여 근로자를 직업 병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는 보람있는 직업이다. 자기 직업에 보람, 긍지를 갖고 있는 직업인의 모습은 금강산 경치가 좋다 한들 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울 것인가.

‘울적했던, 그 어느 날’에 있었던, 아득한 옛날의 일을 다시 되새겨 본다.